

사회과학 학문분야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경향분석: 한국연구재단 우수 및 등재지 게재논문(2017년-2021년)을 대상으로*

박 현 환**
주 효 진***
정 솔****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과학 분야 국내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직무스트레스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KCI) 우수등재지 및 등재지에 게재된 사회과학분야 직무스트레스 관련 국내 연구 논문 91편을 연구대상으로 연구구조(연구분야 세분류, 게재시기, 연구설계), 연구내용(연구목적, 연구대상, 주요변수), 연구방법론(측정도구, 자료수집, 분석)의 관점에서 연구경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연구대상의 선정,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관심 부족,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 자료수집방법론의 엄밀성 부족 등 연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의 양적 및 질적 수준 향상과 학술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연구동향, 연구구조,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I. 서론

스트레스는 유기체의 기능을 교란시키는 긴장 혹은 장애를 이르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널리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 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사업(FTIS 세부과제번호: 2021389A00-2123-010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쓰일 정도로 보편화된 용어이면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져 있다.¹⁾ 즉 현대 사회의 전문화, 다원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및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양상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직장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이 겪는 업무, 역할, 조직 차원에서의 긴장 및 장애는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Thoits, 1983).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는 조직에서 개인의 욕구나 능력, 성격이 환경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하며, 학술적으로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서적 반응'이라는 개념정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NIOSH, 1999).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1999년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보고서를 통하여 단순히 직무특성만이 아닌 보다 폭넓은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즉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조직적 특성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개인이 소속된 직업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직무스트레스를 '업무관련 스트레스(work-related stress)²⁾'로 명명하면서 업무내용, 업무조직 및 작업환경이 해롭거나 불건전한 측면에 대해 개인이 표출하는 정서적·인지적·행동적·생리적 반응패턴이라 보고 있다. 또한 개인이 고도의 각성·격정·이따금 극복이 되지 않는 느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직무스트레스 연구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0).

현재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간호학과 의약학 등 임상의학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학, 경영학 및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학문분야 등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과 같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 및 등재지에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스트레스 연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위한 제언을 함과 동시에 학술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보면, 첫째, 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구조,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론적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의

1) Levi(1995)는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맨 처음 정리한 Seley가 영어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다리 난간에 걸리는 긴장'을 표현하는 물리학적 용어를 차용하여 'strain'이라고 해야 할 것을 'stress'로 잘못 명명하여 개념상 많은 혼동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2) 직무스트레스 용어는 학문분야별로 job stress, occupational stress, work-related stress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양적 및 질적 수준 향상과 학술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조사방법론

1.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정의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에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므로 적응하면서 지내야 하고, 대부분의 질병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신체 반응으로 자율신경계의 교감부가 활성화되고, 응급상황에 반응하도록 신체의 자원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임상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자극이므로 스트레스 자극은 지속적인 피로와 권태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외적인 위협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외적 요인이나 외적인 힘을 의미한다(이현수, 1997).³⁾ 이러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외적 자극을 스트레스 인자(stressor)라고 하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인자를 찾아내면 스트레스 관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평소에 사람들이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스트레스 자극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나고 주먹을 꼭 쥐게 돼”라고 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환경 자극이나 요구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심리학용어사전, 2014). 그리고 스트레스 백과사전(Encyclopedia of stress, 2000)에서는 스트레스를 “생리적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을 일으키는 실제 위협 또는 (실제로는 아니나) 본인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Bruce, 2000: 508-509). 이러한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해로움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혹은 원하지 않는(unwanted)과 도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바람직한(desirable) 혹은 원하는(wanted) 스트레스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가 나쁜 스트레스(distress)라면 후자는 좋은 스트레스(eustress)라고 할 수 있다(박정선, 2007: 44).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김홍조, 2017),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가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능력, 자원, 욕구 등과 업무상 요구

3) 건축가들도 어떤 건물이 지진과 같은 외부 압력에 견뎌내는 힘을 계산할 때 ‘스트레스’란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긴장(strain)이라고 하며 만약 건물에 과다한 스트레스를 주면 이 건물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긴다(장현갑, 강성군, 2002).

사항이 부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와 업무관련 개인의 욕구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서, 개인의 능력이나 욕구가 업무조건과 상충될 때 또는 개인의 욕구와 직무환경이 부적합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즉 업무 요구도가 많거나,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없거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주위 동료나 상사의 지지 조건이 부족하거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질 때 직무스트레스가 커진다고 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용어는 학문분야별로 job stress, occupational stress, work-related stress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학분야의 조직론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job stress'를, 심리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occupation stress'와 'work-related stress'를 직무스트레스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주효진, 2008: 200).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 조직 및 직무 요인, 인간적 요인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물리적 환경, 조직관련 스트레스 요인,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 개인관련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조직 외 관련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조직 내의 역기능적인 결과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와 그 관리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박광희·유화숙, 2003: 168). 또한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로 의학이나 생물학 그리고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스트레스의 문제가 종래의 한정적인 학문분야를 벗어나 조직체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조직행동의 중요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주효진, 2008: 200).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 관광학 등 사회과학 분야, 간호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등 의약학 분야 그리고 예술체육학 분야 등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⁴⁾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심리학과 경영학 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의 성과는 물론 조직성과 및 효과성을 낮추어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쳐, 조직(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는 실증연구의 축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조원섭·유명순, 2013). 뿐만 아니라 직무, 즉 직업이 점차 분화·다양화되면서 관련된 학술분야 및 인접 학술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수단인 직업과 조직생활이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 현대사회가 급속·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직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업무·조직 차원의 문제와 관계갈등 등의 문제가 개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원인, 결과 그리고 중재변수 간 관계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모형, 예컨대, Karasek(1979)의 직무요구-통제 모델(the job demand-control model), Siegrist(1996)의 노력-보상 불균형모델(the effort-reward

4)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2016) 상의 대분류 및 중분류 참고

imbalance), Murphy & Schoenborn(1987)의 NIOSH의 스트레스 모델 등이 제시되면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81년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4년도에 연간 연구논문 수가 100편을 넘어섰고, 2011년도부터 300편, 2016년도부터 연간 논문 수가 400편을 넘어서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제적 연구동향은 물론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02년)하면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⁵⁾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주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규정함⁶⁾으로써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⁷⁾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직업 불안정성, 직업 환경 변화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증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인한 직업·직무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업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취약 및 감염 문제 등 경제·사회의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인사 분야 및 작업장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정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극, 반응,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직무스트레스 유발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직무스트레스 유발원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과 같은 조직효과성과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 범주화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직무스트레스 유발원인(job stressor)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연구들이 집중하고 있다(주효진, 2008: 200-201). 하지만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사회과학분야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반복연구 위주인 실정이다(김정희, 2007; 조원섭·유명순, 2013). 특히 사회과학분야 세분류⁸⁾ 중에서 교육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대상도 유아 교육 및 초등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고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관심의 부족으로 변수와 측정도구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등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후속연구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분류틀을 적용하여 사회과학분야에서의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및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논문의 구조, 내용 및 방법론 차원에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의하면 법률상 '정신적 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7)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8) 정치·행정, 교육, 지리·지역·관광, 사회·인류·복지·여성, 경영·경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학술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KCI) 우수등재지 및 등재지에서 사회과학 학문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총 150편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류는 직무스트레스의 다학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유명순·조원섭(2011)의 문헌 분류 틀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코리아스칼라(KOREASCHOLAR) 등의 검색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주제어로 '직무스트레스' 혹은 'job stress' 혹은 'occupational stress'가 포함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1,637편의 논문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선행연구 중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제외하고 우수등재지 및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150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견한 150편 논문의 구성은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1편,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149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0편의 논문을 1차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모든 논문을 문헌 분석한 결과, 논문이 중복된 경우와 비록 검색되었음에도 초록의 핵심어(key words)에 '직무스트레스'가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 59편이 제외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논문 선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논문 91편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검색된 연구논문은 모두 학술지 논문이었고, 학위논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1차 자료 입력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이었으며, 자료 코딩은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서 정립·활용한 '연구대상 분류틀'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확보하기 위해 코딩된 결과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토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최종 코딩자료의 신뢰도는 Kassarian(1977)이 제시한 최소 신뢰도 동의계수(Agreement Coefficient) 0.85를 초과한 0.861이었다.

4. 연구대상 분류틀

한편 사회과학 분야 직무스트레스 연구논문들의 분류는 이경묵(2008)이 제시하고 유명순·조원섭(2011)이 보완한 분류기준을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분류틀의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구조 관점에서 세분류 및 등재학술지 여부와 게재시기를 구분하였다. 즉 세분류를 통해 전체 사회과학 분야에 산재되어있는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이 사회과학 내 각각의 영역 차원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특정분야 편중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게재시기의 구분을 통해서도 시기별로 연구 수의 증가 및 감소 양상을 통해 연구 활성화 정도와 진행현황을 분석한다. 연구설계 측면에서는 연구방법론 중 특히 양적·질적 연구의 분포정도, 구체적인 측정도구의 활용 경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연구설계기법 사용으로의 편향이 관측되는가를 살펴본다. 이는 결국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영향관계를 파악함

에 있어 한계점이 있는가, 연구결과의 타당성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계될 수 있다. 둘째, 연구내용 관점에서 연구목적, 연구대상, 주요 변수를 구분하였다. 연구목적 차원에서는 탐색적 혹은 설명적 연구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라는 변수에 대한 연구접근 경향을 파악하며, 연구대상 차원에서는 직무스트레스라는 개념 특성 상 어떤 직업군들에 대해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연구들에서 어떤 변수로 사용되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연구방법론 관점에서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을 구분하였다. 즉 측정을 위해 어떠한 척도들을 사용해왔는지를 파악하며, 이와 연계하여 자료수집은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왔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양적 연구에 있어 구체적인 분석 방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특정 분석방법들로의 편향이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이제까지 기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i) 세분류 및 등재학술지(사회과학분야 6개 세분류 및 세분류별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현황), ii) 게재 시기(연도별·세분류별 논문 등재 현황), iii) 연구설계(개별 논문에서 취한 연구설계 방법의 구분), iv) 연구목적(설명적·기술적·탐색적 연구로의 구분 및 주요 내용 검토), v) 연구대상(개별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직업군 혹은 집단), vi) 주요 변수(직무스트레스 외 주요 설정된 주요 변수 현황), vii) 측정도구(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사용된 척도 현황), viii) 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 방법 현황), ix) 분석방법(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분석방법 현황)의 9개 기준이다.

〈표 1〉 연구대상 분류들

항목		내용
연구 구조	세분류 및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구분과 이에 따른 등재학술지
	게재 시기	학회지 게재년도(2017, 2018, 2019, 2020, 2021)
	연구설계	1. 실험설계, 2. 설문조사설계, 3. 사례연구, 4. 기타 질적연구
연구 내용	연구목적	1. 설명적 연구, 2. 기술적 연구, 3. 탐색적 연구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를 직종별로 구분
	주요 변수	1. 설명변수, 2. 매개변수, 3. 조절변수, 4. 종속변수
연구 방법론	측정도구	1. KOSS, 2. JSS, 3. MTOSFQ, 4.
	자료수집방법	1. 설문지법, 2. 면접법, 3. 관찰법, 4. 기타
	분석방법	1. 회귀분석(①단순회귀분석, ②중다회귀분석, ③다중회귀분석, ④위계적 회귀분석, ⑤단계적 회귀분석, ⑥로지스틱 회귀분석), 2. 공분산구조분석, 3. 상관분석, 4. ANOVA, 5. 기타

Ⅲ.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

1. 연구구조 관점에서의 연구경향 분석

1) 사회과학분야 세분류 및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근거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6개 세분류(정치·행정, 교육, 지리·지역·관광, 사회·인류·복지·여성, 경영·경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로 구분된다. 먼저 사회과학 분야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 36편(39.6%), 정치·행정 분야 18편(19.8%), 사회·인류·복지·여성 분야 15편(16.5%), 경영·경제 분야 12편(13.2%), 지리·지역·관광 분야 6편(6.6%),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분야 4편(4.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세분류별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행정 세분류에 포함되는 학술지인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는 5편(5.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편(4.4%), ‘한국위기관리논집’ 3편(3.3%), ‘한국지방자치연구’ 2편(2.2%), ‘미래사회복지연구’ 1편(1.1%), ‘육아정책연구’ 1편(1.1%), ‘한국융합과학회지’ 1편(1.1%),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편(1.1%) 순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 세분류에 포함되는 학술지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는 22편(24.2%), ‘상담심리교육복지’ 2편(2.2%),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편(2.2%),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편(2.2%), ‘교육의 이론과 실천’ 1편(1.1%), ‘교육혁신연구’ 1편(1.1%), ‘복지상담교육연구’ 1편(1.1%), ‘유아교육연구’ 1편(1.1%), ‘유아특수교육연구’ 1편(1.1%), ‘통합교육연구’ 1편(1.1%),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편(1.1%),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편(1.1%)의 순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과학 분야 세분류 및 등재학술지

세분류	등재지	빈도	세분류	등재지	빈도
정치·행정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5.5%)	사회·인류·복지·여성	재활복지	1(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4.4%)		인간발달연구	1(1.1%)
	한국지방자치연구	2(2.2%)		인문사회과학연구	1(1.1%)
	미래사회복지연구	1(1.1%)		사회과학연구논총	1(1.1%)
	한국위기관리논집	3(3.3%)		교정복지연구	1(1.1%)
	육아정책연구	1(1.1%)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1.1%)
	한국융합과학회지	1(1.1%)		여성연구	1(1.1%)
	한국자료분석학회	1(1.1%)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1(1.1%)
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2%)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1.1%)	
	상담심리교육복지	2(2.2%)	지적장애연구	3(3.3%)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2%)	창조와 혁신	2(2.2%)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2%)		한국노년학	1(1.1%)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1%)	경영·경제	외식경영연구	2(2.2%)
	교육혁신연구	1(1.1%)		세무학연구	1(1.1%)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한국창업학회지	1(1.1%)
	유아교육연구	1(1.1%)		산경연구논집	1(1.1%)
	유아특수교육연구	1(1.1%)		시큐리티연구	4(4.4%)
	통합교육연구	1(1.1%)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1.1%)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1%)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1%)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1.1%)
지리·지역·관광	관광연구	6(6.6%)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셋째, 지리·지역·관광 세분류에 포함되는 학술지인 '관광연구'에는 6편(6.6%)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인류·복지·여성 세분류에 포함되는 학술지인 '지적장애연구'에는 3편(3.3%), '창조와 혁신'에 2편(2.2%), '재활복지'에는 1편(1.1%), '인간 발달연구'에 1편(1.1%), '인문사회과학연구' 1편(1.1%), '사회과학연구논총' 1편(1.1%), '교정복지연구' 1편(1.1%),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편(1.1%), '여성연구' 1편(1.1%),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1편(1.1%),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편(1.1%), '한국노년학' 1편(1.1%)의 순으로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영·경제 세분류에 포함되는 학술지인 '시큐리티연구'에 4편(4.4%), '외식경영연구'에 2편(2.2%), '세무학연구'에 1편(1.1%), '한국창업학회지' 1편(1.1%), '산경연구논집' 1편(1.1%),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편(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에 1편(1.1%)의 순으로 연구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세분류에 포함되는 학술지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에 4편(4.4%) 그리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에 1편(1.1%)의 연구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된 연구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편(24.2%), 관광연구 6편(6.6%),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편(5.5%), 한국공안행정학회보와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및 시큐리티연구 각 4편(4.4%), 지적장애연구 3편(3.3%), 상담심리교육복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창조와 혁신, 외식경영연구가 각 2편(2.2%), 그 외 등재지가 각 1편씩(1.1%)을 구성하고 있다. 즉, 전체 사회과학 분야 세분류 가운데 교육 세분류에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편, 39.6%), 특히 '학습자중심교과교육' 등재지에 22편의 논문(24.2%)이 게재되어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특정 세분야 및 등재지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논문의 게재 시기

2017년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직무스트레스 연구 논문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인 총 91편의 연구논문은 2017년 20편(22.0%), 2018년 21편(23.1%), 2019년 9편(9.9%),

2020년 34편(37.4%)이었으며, 2021년 5월 30일까지 등재된 논문의 수는 7편(7.7%)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분야 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 세분류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수는 연도별(2017-2021)로 4편(4.4%)-2편(2.2%)-1편(1.1%)-10편(11.0%)-1편(1.1%)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20년에는 논문 게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인 및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겠으나, 해당 세분류 연구논문의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교육 세분류는 연도별로 4편(4.4%)-7편(7.7%)-6편(6.6%)-17편(18.7%)-2편(2.2%)의 연구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에 연구논문이 17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연구의 연구배경 및 목적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설명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1건 발견되었다(김설화 외, 2021).

지리·지역·관광 세분류의 경우 2017년에 1편(1.1%), 2018년 2편(2.2%), 2019년 0편(0.0%), 2020년 1편(1.1%) 그리고 2021년 2편(2.2%)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수는 증감 없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인류·복지·여성 세분류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5편(5.5%)-3편(3.3%)-1편(1.1%)-4편(4.4%)-2편(2.2%), 경영·경제 세분류의 경우 6편(6.6%)-2편(2.2%)-1편(1.1%)-2편(2.2%)-0편(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세분류의 경우에는 0편(0.0%)-5편(5.5%)-0편(0.0%)-0편(0.0%)-0편(0.0%)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부터 본격화되어, 2004년도부터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논문 수가 100편을 넘어서고, 2011년도부터는 300편, 2016년도에 400편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2021년(5월 30일)까지의 연구논문의 수와 게재시기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논문 게재 시기

세분류	연도별 빈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5.30)	
정치·행정	4(4.4%)	2(2.2%)	1(1.1%)	10(11.0%)	1(1.1%)	18(19.7%)
교육	4(4.4%)	7(7.7%)	6(6.6%)	17(18.7%)	2(2.2%)	36(39.6%)
지리·지역·관광	1(1.1%)	2(2.2%)	0(0.0%)	1(1.1%)	2(2.2%)	6(6.6%)
사회·인류·복지·여성	5(5.5%)	3(3.3%)	1(1.1%)	4(4.4%)	2(2.2%)	15(16.5%)
경영·경제	6(6.6%)	2(2.2%)	1(1.1%)	2(2.2%)	0(0.0%)	11(1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0(0.0%)	5(5.5%)	0(0.0%)	0(0.0%)	0(0.0%)	5(5.5%)
계	20(22.0%)	21(23.1%)	9(9.9%)	34(37.4%)	7(7.7%)	91(100%)

3)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91편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논문을 연구방법론에 따른 연구설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이 89편으로 연구 설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논문은 2편에 불과하였으며, 2편 모두 연구동향 분석연구로서 문헌연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연구방법론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론은 설문조사설계로 전체 91편의 논문 중 86편(94.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양적연구방법론인 실험설계를 채택한 논문은 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분야 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 세분류상의 연구논문은 18편으로 모두 설문조사설계를 활용하였고, 교육 세분류상의 연구논문은 36편으로, 이 중 34편이 설문조사설계, 2편(김안나, 2018; 오진석 외, 2020)이 실험설계를 통하여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지리·관광 세분류상의 연구논문은 6편으로 모두 설문조사설계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사회·인류·복지·여성 세분류의 경우 전체 15개 논문 중에서 설문조사설계를 따른 연구가 13편, 실험설계에 근거한 연구가 1편(조한솔·김정민, 2021), 질적연구방법론인 문헌연구를 따른 논문이 1편(차수민, 2020)이었다. 경영·경제 세분류의 경우에는 설문조사설계에 따른 연구가 10편, 문헌연구가 1편(최성규, 2018)이었으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세분류의 경우는 총 5편의 논문이 모두 설문조사설계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2017년도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게재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설문조사설계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Many ways of knowing’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연구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특정 연구설계기법에 치우쳐져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설문을 통한 횡단면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인과관계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한된 이해와 설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 연구논문들의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이기홍·최대용, 2000).

〈표 4〉 연구설계

세분류	연구설계 빈도(%)				계(%)
	실험설계	설문조사설계	사례연구	문헌연구	
정치·행정	0(0.0%)	18(19.8%)	0(0.0%)	0(0.0%)	18(19.8%)
교육	2(2.2%)	34(37.4%)	0(0.0%)	0(0.0%)	36(39.6%)
지리·지역·관광	0(0.0%)	6(6.6%)	0(0.0%)	0(0.0%)	6(6.6%)
사회·인류·복지·여성	1(1.1%)	13(14.3%)	0(0.0%)	1(1.1%)	15(16.5%)
경영·경제	0(0.0%)	10(11.0%)	0(0.0%)	1(1.1%)	11(1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0(0.0%)	5(5.5%)	0(0.0%)	0(0.0%)	5(5.5%)
계	3(3.3%)	86(94.5%)	0(0.0%)	2(2.2%)	91(100%)

2. 연구내용 관점에서의 연구경향 분석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대상인 91편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논문은 인과관계를 규명을 목적으로 한 설명적 연구가 88편(96.7%), 직무스트레스 연구동향의 기술을 목적으로 한 기술적 연구가 2편(2.2%),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목적으로 한 탐색적 연구가 1편(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논문들의 연구목적을 사회과학 분야 세분류별로 보면 정치·행정 세분류의 경우 총 18편의 논문 전체가 설명적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세분류의 경우 전체 36편의 논문 중 35편이 설명적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탐색적 연구 1편). 지리·지역·관광 세분류의 경우에도 전체 6편의 논문이 모두 설명적 연구였으며, 사회·인류·복지·여성 세분류의 경우에도 전체 15편의 논문 중 기술적 연구 1편을 제외한 나머지 14편의 논문이 설명적 연구였다. 경영·경제 세분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전체 11편의 논문 중 기술적 연구 1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10편이 설명적 연구였으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세분류도 이와 비슷하게 게재된 5편의 연구논문이 모두 설명적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세분류상 탐색적 연구 1편(1.1%), 사회·인류·복지·여성 세분류 및 경영·경제 세분류상에서의 기술적 연구 각 1편(1.1%)을 제외하면 이외의 연구논문은 모두 설명적 연구(88편, 96.7%)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논문의 목적은 설명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연구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적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차수민, 2020)와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최성규 외, 2018) 두 편이었고, 탐색적 연구는 장애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한 연구(김정민·유영의, 2018) 1편이었다.

설명적 연구의 경우, 용어의 선정에 있어 직무스트레스 대신 외상후 스트레스를 사용한 논문이 3편(김성환, 2017; 김윤정·배정미, 2020; 차민규·김은기, 2020) 있었으며, 이들 연구논문은 스트레스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오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대신에 외상후 스트레스 요인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명적 연구는 크게 직무스트레스 영향연구와 결과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영향연구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가 12편(강석임·구자정, 2020; 김경신, 2017; 김근홍·송지원, 2017; 박창범 외, 2017; 변정희 외, 2017; 신동철·권재환, 2018; 양재혁·김성자, 2020; 이선범·김양현, 2017; 현말순 외, 2017; 정성배, 2019; 차운성 외, 2018; 홍혜승·류은영, 2020), '조직몰입'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가 11편(곽성근·이영균, 2020; 김기동 외, 2017; 김혜연·남승규, 2018; 백재환·박정호, 2019; 송은일·이종호, 2017; 심지현, 2020; 엄세진·강현영, 2018; 오세희·이지혜, 2017; 이선범·김양현, 2017; 전창욱 외, 2018; 현말순 외, 2017),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10편(고경필·심미영, 2017; 김보연·이연숙, 2021; 김의

영, 2020; 김지수·김영규, 2021; 박남심 외, 2019; 박찬희·박현, 2020; 백재환·박정호, 2019; 송은일·이종호, 2017; 신영일, 2018; 염진철, 2018) 그리고 '소진(Burn-out)'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7편(염진철, 2018; 이지영·이주연, 2020; 김정은, 2018; 신영일, 2018; 이혜원, 2020; 조선미·정춘화, 2018; 조한솔·김정민, 202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결과연구로는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감정노동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느끼는 감정부조화가 직무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연구 5편(김동욱, 2019; 김성환, 2017; 염진철, 2018; 조선미·정춘화, 2018; 최연숙 외, 2020), 근로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6편(김경신, 2017; 김세기·이승만, 2020; 신영일, 2018; 심지현, 2020; 조재영, 2018; 좌승화·오정희, 2019)과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5편(권혜리·김지연, 2020; 김보연·이연숙, 2021; 박남심 외, 2019; 양재혁·김성자, 2020; 최수용, 2020)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증상에 관한 연구로서, 직무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우울감을 높인다는 연구 2편(김설화 외, 2021; 김성환, 2017),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화병증상이 커진다는 연구(서은경·주은선, 2017)가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 대처(Coping)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2편(손영진, 2018; 허아람·이희영, 2021)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연구논문들은 대부분 설명적 연구로 직무스트레스 영향 연구 및 결과연구로 구분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동일한 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목적

세분류	연구 목적 빈도(%)			계(%)
	설명적 연구	기술적 연구	탐색적 연구	
정치·행정	18(19.8%)	0(0.0%)	0(0.0%)	18(19.8%)
교육	35(38.5%)	0(0.0%)	1(1.1%)	36(39.6%)
지리·지역·관광	6(6.6%)	0(0.0%)	0(0.0%)	6(6.6%)
사회·인류·복지·여성	14(15.4%)	1(1.1%)	0(0.0%)	15(16.5%)
경영·경제	10(11.0%)	1(1.1%)	0(0.0%)	11(1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5(5.5%)	0(0.0%)	0(0.0%)	5(5.5%)
계	88(96.7%)	2(2.2%)	1(1.1%)	91(100%)

2) 개별 논문에서의 연구대상

직무가 '직책 혹은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인 개별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은 개인보다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업분류체계에 대하여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가 존재하나, 연구에서 분석한 91개 연구논문의 연구대상별

직업과 매칭하기 곤란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직업을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맞춰 분류하였다. 유아·유치원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보건의료·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규범적 공공성(Bozeman, 2007; Goldstein and Naor, 2005; Moulton, 2009)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공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6〉 개별 논문에서의 연구대상

분류		연구대상(직업군)
공공 부문	일반직 공무원(6)	중앙공무원(1), 지방공무원(5)
	특정직 공무원(40)	경찰공무원(4), 해양경찰공무원(2), 소방공무원(4), 관리자급 교사(1), 초·중·고교 교사(4), 특수교사(4), 유아·보육교사(21)
	보건복지 종사자(9)	장애인 특수교육 교사(2),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1), 장애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2), 장애학생지도 특수교사(1), 장애학생 보조 특수교육 실무원(1), 보육센터 매니저(1),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1)
	보건의료 종사자(1)	임상간호사(1)
	요양시설 종사자(3)	치매관련 장기요양시설 종사자(1), 노인요양시설 종사자(1),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1)
	공공경비 종사자(1)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1)
	기타(2)	중등교육 학교스포츠클럽 강사(1), 대학 영어교사(1)
민간 부문	서비스업 종사자(19)	감정노동 종업원(1), 객실승무원(2), 호텔 종사자(2), 외식산업 종사자(3), 콜센터 등 상담사(2), 톨게이트 여성 종사자(1), 작업치료사(1), 언어치료사(1), 피부미용사(1), 스포츠센터 정식 종사자(1), 민간경비 종사자(4)
	전문직 종사자(2)	세무회계 종사자(1), 외국계 생명보험설계사(1)
	기타(6)	금연한 성인 근로자(1), 자녀를 둔 민간부문 여성 종사자(1), 사무직 남성 종사자(1), 전국 취업자(1), 서울시 소재 직장인(1), 다국적기업 조직구성원(1)

한편 위의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 2017년부터 2021년(5월 30일)에 걸쳐 게재된 연구논문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직업군은 유아·보육교사(21편, 2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초·중등교사, 특수교사, 장애인 특수교사 등 ‘교사 관련 직업군’에 초점을 맞추면 38편(41.8%)의 개별논문에서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동향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치중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요 변수의 사용

주요변수는 주제어분석을 통하여 총 91편 논문 중에서 인과관계 모델분석을 시도한 연구 88편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과관계 모델 분석 연구는 교육 분야가 36편(4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행정 18편(20.5%), 사회·인류·복지·여성 분야 14편(15.9%), 경영·경제 9편(10.2%), 지리·지역·관광 6편(6.8%) 그리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5편(5.7%)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직무스트레스가 설명변수로 설정된 연구는 총 46편(52.3%), 중

속변수로 설정된 연구는 32편(36.4%)으로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영향연구가 많았다. 직무스트레스가 설명변수일 경우 종속변수로 직무만족이 설정된 연구가 12편, 조직몰입 11편, 이직의도 10편, 소진(Burn-out) 7편의 순이었고,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수로 설정된 경우 독립변수 혹은 매개변수로 회복탄력성을 설정한 연구는 6편, 자아탄력성 5편, 감정부조화 5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개인의 긍정성(1편), 그릿(Grit, 1편), 고객불량행동(1편), 언어폭력경험(1편)을 비롯하여 공공봉사동기(1편), 니코틴 의존도(1편), 조직공정성(1편), 인적자원관리(1편), 상사의 유머(1편), 고용환경(1편), 여가활동(1편), 감정노동자의 CCTV 인식수준(1편) 등 다양한 변수가 설명변수로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무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 설정된 논문도 10편(11.4%)이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가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간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실증한 논문이 2편, 감정노동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실증한 논문이 1편, 자아탄력성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실증한 논문이 1편, 직일-가정 균형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실증한 논문이 1편 등이었다. 즉,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변수의 선정이 비록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Burn-out)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 외에도 개인의 긍정성, 그릿, 니코틴 의존도, 조직공정성, 상사의 유머, CCTV 인식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선정되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의 연구논문이 변수의 선정에 있어 지나친 편중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표 7〉 변수 사용(직무스트레스)

세분류	변수의 사용(%)				계(%)
	설명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정치·행정	12(13.6%)	2(2.3%)	0(0.0%)	4(4.5%)	18(20.5%)
교육	22(25%)	4(4.5%)	0(0.0%)	10(11.4%)	36(40.9%)
지리·지역·관광	1(1.1%)	2(2.3%)	0(0.0%)	3(3.4%)	6(6.8%)
사회·인류·복지·여성	6(6.8%)	1(1.1%)	0(0.0%)	7(8.0%)	14(15.9%)
경영·경제	3(3.4%)	1(1.1%)	0(0.0%)	5(5.7%)	9(10.2%)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2(2.3%)	0(0.0%)	0(0.0%)	3(3.4%)	5(5.7%)
계	46(52.3%)	10(11.4%)	0(0.0%)	32(36.4%)	88(100%)

3. 연구방법론 관점에서의 연구경향 분석

1) 측정도구

양적연구방법론에 따라 연구설계를 한 89편의 논문에서 활용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측정도구가 직접 사용된 경우'와 '연구의 목적에 맞춰 수정·보완되어 사용된 경우' 그리고 '직무스

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급성반응에 초점을 맞춘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정·보완한 방식으로 활용된 직무스트레스 척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는 장세진·고상백(2005)이 개발한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D'Arienzo(1981)가 Clark(1980)이 개발한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TOSFQ: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수정한 '수정된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TOSFQ: 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 그리고 TOSFQ와 MTOSFQ를 수정·보완한 '신혜영(2004)의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 등의 순으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교사 직업군 제외), 기타 사무직 남성종사자, 전국 취업자, 서울소재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KOSS 기본형(8개 하위요인, 43문항)이 사용된 사례는 없고 KOSS 단축형(7개 하위요인, 24문항)이 직접 사용된 논문이 14편, 7개 하위요인 중 일부(직무요구, 직무자율 혹은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등)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논문이 4편인 것으로 나타나 총 18편의 논문이 KOSS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등 교사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개별 논문에서는 주로 '수정된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MTOSFQ: 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TOSFQ: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 '신혜영(2004)의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MTOSFQ가 직접 사용된 논문은 1편,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논문은 16편으로 총 17편의 논문에서 MTOSFQ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OSFQ의 경우 수정·보완되어 사용된 사례는 6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혜영(2004)의 척도는 직접 사용된 논문이 13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arasek(1979; 1988)이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척도(JCQ: Job Content Questionnaire)는 직접 사용된 논문은 없으나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논문이 7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pielberger와 Vagg(1999)가 개발한 '직무스트레스척도(JSS: Job Stress Survey)의 경우 직접 사용된 논문이 1편,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논문이 4편으로 총 5편의 논문에서 이 척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불안, 직무 피로, 직무 우울이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주요 증상"이라고 설명한 McGrath(197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연구가 5편, "건강 이상, 지침, 불면, 초초가 직무스트레스의 급성반응이라고 주장한" Netemeyer(2005)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연구가 2편, "환경 콘트롤, 환경만족, 의사소통, 물리적 스트레스가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Huang(2014)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연구가 2편, "역할모호, 역할갈등, 역할과다가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Jayaratne(1984)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연구가 3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척도	직접(%)	수정·보완(%)	계(%)
요인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	14(15.7%)	4(4.5%)	18(20.0%)
	수정된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MTOSFQ)	1(1.1%)	16(17.9%)	17(19.1)
	교사 직무스트레스 척도(TOSFQ)	0(0.0%)	6(6.7%)	6(6.7)
	신혜영(2004)	13(14.6%)	0(0.0%)	13(14.6)
	직무스트레스 척도(JCQ)	0(0.0%)	7(7.9%)	7(7.9%)
	Huang(2014)의 척도	0(0.0%)	2(2.2%)	2(2.2%)
	Jayaratne(1984)	0(0.0%)	3(3.4%)	3(3.4%)
반응	직무스트레스 척도(JSS)	1(1.1%)	4(4.5%)	5(5.6%)
	McGrath(1976)의 척도	0(0.0%)	5(5.6%)	2(2.2%)
	Netemeyer(2005)의 척도	0(0.0%)	2(2.2%)	2(2.2%)
기타	SPT, WOSS, MBI-GS, CES-D 등	0(0.0%)	16(18.0%)	16(18.0%)
계				89(100.0%)

한편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둔 척도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발현한 급성반응에 초점을 맞춘 척도를 구분해보면, 먼저 본 연구에서의 개별 연구논문들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KOSS, MTOSFQ, TOSFQ, 신혜영(2004)의 척도와는 모두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맞춘 측정도구라는 특성이 있다.⁹⁾ 이와 더불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활용된 Huang(2014)의 척도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주로 업무측면으로 찾으려한 Jayaratne(1984)의 척도 또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둔 척도라 할 수 있다. 반면, Spielberger와 Vagg(1999)의 ‘직무스트레스척도(JSS), McGrath(1976)의 척도 그리고 Netemeyer(2005)의 척도 등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증상(불안, 피로, 우울, 건강 이상, 지침, 불면, 초조 및 지난 일주일 간 인지된 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맞춘 척도라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인 8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척도는 대체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와 신혜영(2004)의 척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별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직무스트레스 측정척도를 임의로 수정·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수정·보완의 형태는 척도의 설문문항 수를 줄이거나 혹은 이론적 논의에 따라 새로운 설문문항을 구성하는가 하면, 점수척도를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연구에 활용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구 간 상호비교를 어렵게 만든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9) KOSS는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8개 하위요인으로 ‘근무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를 제시하고 있다(단축형의 경우 ‘근무환경’이 제외됨) MTOSFQ, TOSFQ, 신혜영(2004)의 척도는 공통적으로 ‘학생행동’, ‘행정관리자 관계’, ‘교사 상호 관계’, ‘학부모 관계’, ‘시간관리’, ‘내적 갈등’이라는 6개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인 91편의 연구논문은 문헌연구를 수행한 2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료를 활용한 89편의 연구논문 중에서 실험설계를 실시한 3편(김안나, 2018; 오진석 외, 2020; 조한솔·김정민, 2021)의 논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86편의 논문은 모두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인 것이 확인되었다(94.5%).

이러한 분석결과를 앞의 ‘개별 논문에서의 연구대상’인 직업군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자료수집 범위는 단일직종 연구가 83편, 다수직종이 6편(김기동 외, 2017; 김상균·전용일, 2020; 김은선·정지현, 2020; 남윤주 외, 2018; 서은경·주은선, 2017; 전창욱 외, 2018)이었으며, 단일직종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연구가 1편, 직종 간 비교연구가 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단일직종 비교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유치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비교연구(이영희·고흥, 2020)였으며, 직종 간 비교연구는 유치원 교사와 초·중등교사 간 직무스트레스의 비교연구(김희영·문가영, 2020)였다. 즉, 자료수집을 실시한 연구대상의 40% 이상이 ‘교사 관련 직업군’이어서 최근 5년간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본추출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간편추출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본집단의 특성상 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하나인 층화표본추출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인 간편추출법을 사용하는 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추출법은 경제적·집행적 측면에서 편리성이 확보된 자료수집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확률표본추출법, 특히 간편추출법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여 과연 개별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안주아, 2002).

3) 분석방법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구대상인 91편의 논문 중에서 연구방법론은 주로 양적연구방법론이 활용되었으며, 회귀분석이 56회(61.5%), 공분산구조분석은 24회(26.4%), ANOVA 4회(4.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논문이 14편으로 가장 많았다. 매개효과분석은 주로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논문이 12편, 위계적 회귀분석¹⁰⁾을 실시한 논문이 8편, 단순 회귀분석과 중다 회귀분석¹¹⁾을 실시한 논문이 각 7편이었으며, 단계적 회귀분석¹²⁾을 실

10) 연구자가 어떤 변인을 언제 입력할지 순서를 결정하여 예측하는 회귀분석 방법

11) 여러 개의 독립변인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종속변인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회귀분석 방법

시한 논문이 3편, 다중 회귀분석과 함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논문도 2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bootstrapping과 Sobel-test를 거친 매개효과분석을 활용한 논문이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만을 실시한 논문이 7편, 다중집단분석¹³⁾을 실시한 논문이 1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ANOVA를 사용한 논문이 4편(이영희·고흥, 2020; 박미경·변혜선, 2020; 남윤주 등, 2018; 황신해·김민진, 2017), 요인분석을 실시한 논문이 1편(김정민·유영의, 2018), 그리고 상관분석을 실시한 논문 1편(현말순 등, 2017)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험설계기법인 단일집단 사전사후분석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2편(신수경, 2019; 오진석·손성민·전병진, 2020), 실험집단-통제집단 사전사후분석을 실시한 논문이 1편(조한솔·김정민, 20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이 3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한 논문이 2편(배현민·최지영, 2020; 차수민, 2020), 주제분석 방법¹⁴⁾을 사용한 논문이 1편(이지영 등, 2017)이었다.

〈표 9〉 분석방법론

연구방법론		빈도 (%)
회귀분석	단순 회귀분석	7(7.7%)
	중다 회귀분석	9(9.9%)
	다중 회귀분석	12(13.2%)
	다중 회귀분석-조절효과분석	2(2.2%)
	다중 회귀분석-매개효과분석	14(15.4%)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1(1.1%)
	위계적 회귀분석	9(9.9%)
	단계적 회귀분석	3(3.3%)
	로지스틱 회귀분석	1(1.1%)
공분산구조분석	구조방정식	7(7.7%)
	구조방정식-매개효과분석	16(17.6%)
	구조방정식-다중집단분석	1(1.1%)
ANOVA		4(4.4%)
상관분석		1(1.1%)
요인분석		1(1.1%)
질적연구방법론-문헌분석, 주제분석		3(3.3%)
계		91(100.0%)

12) 부분상관계수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변인을 선택하여 예측할 때 사용하는 회귀분석방법이다.

13) 구조방정식에서 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다.

14) 반복된 패턴을 식별하여 분석하고 보고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를 검색하는 분석방법이다.

IV. 직무스트레스 연구경향 분석에 대한 논의 및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교육 세분류를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연구설계,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주요 변수 등 연구내용,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등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동일한 대상, 동일한 변수의 설정, 동일한 측정 및 동일한 방법론의 적용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발전해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의 문제점과 논의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치우침 경향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주제, 변수의 선정, 연구방법론, 자료의 종류 및 자료의 수집 등이 과도하게 특정 방식에 치우쳐져 있는 ‘연구상 미분화¹⁵⁾’가 발견된다. 연구대상인 91편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양적연구방법론(96.7%), 설명적 연구(96.7%), 설문조사설계(94.5%), 횡단면자료의 사용(94.5%) 등이 주로 활용되어 연구의 치우침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치우침 현상은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자료의 타당성 확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이명하, 1996), 횡단면자료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론, 측정, 분석, 해석이 상이해지며, 제한된 이해와 설명만이 남게 된다는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즉, 연구의 치우침 현상은 직무 스트레스를 둘러싼 개인, 심리, 문화, 조직적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발생시키는 물론 표본의 선택오류와 응답오류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조원섭·유명순, 2013).

한편 91편의 논문들 중 대부분의 논문(89편, 96.7%)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정 자료수집 방법에 치우친 연구는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접·관찰 등 다양한 보완적 방법을 통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이명하, 1996).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대상 및 연구주제는 설명적 접근방식과 이해의 접근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과학 분야의 문제들을 ‘Many ways of knowing’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연구방법론에 대한 일방적 치우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이기홍·최대용, 2000).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2017년-2021년 5월 30일까지 등재지에 게재된 직무스트레스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이 양적연구방법론에 치중되어 있어 학계의 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량적 조사방법론에 치우쳐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치우침 현상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이기홍·최대용, 2000; 조원섭·최명순, 2013)와 동일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향후 양적연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을 균형적으로 연결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Triangulation’이 활발히 활용되며, 이를 활용

15) 연구상 미분화는 한 분야의 연구들이 연구주제, 연구설계, 사용 데이터의 종류, 자료수집 방법 등이 특정 방식에 과도하게 치우친 것을 의미한다(최만기·박오수, 1993).

한 사회현상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Campbell & Fiske, 1959). 이를 위해서는 개념연구 및 문헌연구 등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해 학계에서 논문투고를 장려하는 학계의 풍토 변화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 선정과 분석수준

연구대상인 91편의 논문 중에서 '금연한 성인 노동자', '자녀를 둔 민간부문 여성 종사자', '사무직 남성 종사자' 등 5개의 논문과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한 2편의 연구를 제외하면, 84편(92.3%) 논문은 모두 특정 직업을 가진 개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주제로 선정하고 있다. 물론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말하므로 조직현상을 다뤄야 하는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석수준의 일관성 유지의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Klein et al., 1994). 그럼에도 분석수준의 문제는 개념과 방법론 사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문제, 자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 잘못된 추론을 할 가능성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84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모두 개인수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개인 요인은 물론 조직수준의 자료인 조직 요인, 직무 요인, 집단 요인 등 거의 모든 자료를 개인의 기준에 의존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인과 조직·집단의 관계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자료가 분석되고 그 결과의 해석은 조직·집단의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측정, 분석, 해석의 수준이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Klein et al., 1994). 특히, 개념적 관련성이나 타당도와 무관한 직무특성상 및 조직여건 상의 불만족, 부정적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도 내포한다 할 것이다(Staw, 1984).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대안이 새롭지 않다고도 주장한다(조원섭·유명순, 2013). 즉 이론에 근거한 측정과 분석수준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연구 설계 절차에서 분석수준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설문도구를 구체화하는 방안과 개인 수준의 인지를 묻는 방식 외의 다른 방법론을 구상·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내용은 그간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직업군에 대한 고찰이다. 즉 개별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유아·보육교사, 초중교사 등과 같은 직업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에 연구대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외연을 넓혀도 보건복지 종사자와 민간부문의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에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직업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경찰·해양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대한 연구에서 '고위험직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 연구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거하여 직업의 위험도를 구분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직업을 가진 모든 현대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위험도에 따른 고위험직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대해 상호비교연구가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고위험직군에 대한 접근을 크게 3개의 방향에서 접근하여 첫째, 물리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은 보험업계·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등의 기관에서 개발한 ‘직업위험등급분류표’ 상의 등급을 반영하고, 둘째, 직업 다양화 및 직업수행 양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노동을 고려하여 한국의 직업지표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에 따른 감정노동 지수를 고려하며,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을 국제안전보건동향(산업안전공단, 2020)에 근거하여 고위험직군을 분류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의 연구에서 더욱 심도 깊게 접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3. 측정도구

직무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평가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풍토에 맞는 것인가에 관한 고찰로부터 어떤 요인을 측정해야 직무스트레스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이명하, 1996; 최서란·정혜선, 2004).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 측정척도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척도는 KOSS 단축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KOSS는 IMF 이후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등의 요인이 반영된 측정도구로, JCQ, OSI(K-OSI), NIOSH, ERI 등 비교적 높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망라하여 한국의 풍토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된 것이다(장세진·고상백, 2005). KOSS는 한국에서의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8개의 범주로 압축하여 구성된 측정도구로서, 주로 ‘직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 등 현재의 근로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하위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¹⁶⁾ 또한 KOSS 단축형에서는 기본형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위요인인 물리환경에 관한 측정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독립적인 하위요인범주의 단순합산이 초래할 수 있는 측정오류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장세진·고상백, 2005; 이은연·손경희, 2015). KOSS 외에 많이 사용된 측정도구는 TOSFQ 및 MTOSFQ를 바탕으로 한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신혜영(2004)의 교사 직무스트레스 측정척도였다. 이러한 신혜영(2004)의 연구도 KOSS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관찰 등 예비조사를 통하여 한국 맥락을 반영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라 할 것이다.¹⁷⁾ 그러나 신혜영(2004)의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연구대상이 유아·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한정되어 있고, 예비조사 및 본조사 단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외적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신혜영, 2004). 한편 KOSS와 신혜영(2004)의 척도를 직접 사용한 연구 외

16) KOSS 표준형은 8개 요인범주 43개 문항(물리환경(3), 직무요구(8), 직무자율(5), 직무불안정(6), 관계갈등(사회적 지지)(4), 조직체계(7), 보상부적절(6), 직장문화(4))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연구에서 물리환경 요인에 감정노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측정이 ‘직무’에 초점을 맞추면서 삭제되었다(장세진·고상백, 2005).

17) 신혜영(2004)은 4개 하위차원 27개 문항(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지원 부족(11), 업무과부하(8), 동료와의 관계(5), 학부모와의 관계(3))로 구성되어 있다.

에도 이를 연구자가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논문이 12편(13.5%),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가 9편(10.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경향은 연구대상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에 개발되어 타당성을 검증받은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임의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결과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기존 측정도구와 연구대상의 정합성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가 입증된 측정도구 문항을 임의수정하거나 점수척도를 변경함으로써 연구 간 상호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경향의 누적은 연구결과의 축적과 통합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까지 초래하게 된다(김정희, 2007).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하위요인, 측정,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 그리고 분야 간 상호비교연구 가능성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변상해·유상현, 2018; 이은연·손경희, 2015; 조원섭·유명순, 2013).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IMF 이후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개발된 KOSS와 같은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산업환경 및 코로나-19 등 조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연구대상의 다양성 및 개별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새롭게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김정희, 2007).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와 맥락을 같이 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은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장세진·고상백, 2005).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의 세분류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측정도구들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후속 연구, 그리고 그를 통해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많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고찰, 정신건강 측정 등 인접한 학술 영역에 존재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인지하고 연구의 수준과 범위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하재혁 외, 2008). 이와 함께 다양한 학술분야에서의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누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맥락에 맞는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표본추출방법론의 엄밀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91개 논문 가운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논문은 89편으로 전체 연구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논문 중 확률표본추출법에 근거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료수집단계에서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한 10여 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표본추출방법 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논문들은 대체로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간편추출법, 즉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자료를 구체적 설계 없이 수집한 논문들이었다. 비록 경제적·집행적 측면에서 편리하기는 하나, 비확률표본추출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연구결과가 개인 수준의 연구인지, 개인이 소속된 직업·조직 수준의 연구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간편추출법은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동기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차별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 소속된 조직 및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안주아, 2002), 이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자발적 참여자들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응답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표본추출방법론에 관해 보다 엄밀한 절차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 및 등재지에 게재된 91편의 사회과학분야(6개 세분류별) 논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현재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연구설계,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주요 변수 등 연구내용,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등 여러 차원에서 연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동일한 대상, 동일한 변수의 설정, 동일한 측정 및 동일한 방법론의 적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과학분야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문제점은 연구의 치우침 현상, 연구대상 미분화, 측정과 분석수준 간 일치성의 문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연구대상 간 정합성의 한계, 표본추출방법에서의 엄밀성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연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을 균형적으로 연결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연구대상과 연구대상이 소속된 조직·집단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연구자가 더 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표준화를 위해 다학제적 숙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는 매일 매일 우리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리고 조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직무스트레스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처방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분야 분야를 넘어 전 학문분야에서 스트레스 및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인문 및 사회과학분야 그리고 보건의료 등의 임상의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¹⁸⁾ 또한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 뿐만 아니라 향후 이루어질 연구들 모두가 학술적 측면뿐

18)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KCI) 우수등재지 및 등재지에서 사회과학 학문분야에서 게재된 총 150편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학술분야의 연구 성과와 2017년도 이전의 논문들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전체 직무

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서도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강이슬·김민경 (2011). 영아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 학회지」 7(4): 325-352.
- 김대욱 (2015). 유아교육기관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35(4): 173-196.
- 김매자·구미옥 (1984). 간호원이 근무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14(2): 28-37.
- 김요진·이희숙 (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4): 25-47.
- 김정희 (2007). 직무스트레스 관리중재에 대한 논문 분석(1991-2004), 「산업간호학회지」 16(1): 15-27.
- 김홍조 (201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문형구·최병권 (2010).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동향과 향후 방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4(3): 117-187.
- 박광희, 유화숙 (2003).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1(6), 167-183.
- 박정선. (2007). 스트레스 내지 직무스트레스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산업보건」, 3월호: 42-48.
- 변상해·유상현 (2018). 고위험 공무원직군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동향 및 과제: 경찰관, 소방관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2018 Apr.27: 143-147.
- 손경희·이은연 (2015).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3): 87-95.
- 송미선 (2014). 유아교사의 행복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3(3): 149-169.
- 신혜영 (200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주아 (2002).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온라인 여론조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한국방송학보」 16(2): 213-241.
- 오은영·강경화·김광점·민흥기 (2018). 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3(1): 16-27.
- 유명순·조원섭 (2011). 우리나라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현황과 발전과제: 보건학·사회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11(1): 521-553.

- 유명순·조원섭 (2011). 우리나라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현황과 발전과제: 보건학·사회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11(1): 521-553.
- 유승연 (2017). 직업군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군간호연구」 35(1): 41-52.
- 이기홍·최대홍 역 (2000). 「사회이론과 방법론에 다가가기」. Blaikie, N. Approaches to Social Enquiry.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경목 (2008). 인사·조직연구의 발전과 미래 과제: 인사·조직연구 게재논문과 한국인사·조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16(3): 161-211.
- 이명하 (1996).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분석, 「성인간호학회지」 8(1): 180-200.
- 이은연·손경희 (2015).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3): 87-95.
- 장세진·고상백 (2005).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 「스트레스」 13(3): 183-197.
- 정혜영·손유진 (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283-308.
- 조원섭·유명순 (2013).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간호 연구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간호행정학회」 19(1): 63-75.
- 조원섭·유명순 (2013).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간호 연구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간호행정학회」 19(1): 63-75.
- 조한솔·김정민 (2021).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5(1): 85-111.
- 주효진. (2008).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 「행정논총」 45(4): 195-221.
- 차수민 (2020).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2(2): 133-142.
- 최만기·박오수 (1993). 한국 조직행동 연구의 동향, 문제점, 과제 및 전망, 「인사·조직연구」 2(1): 1-74.
- 최서란·정혜선 (2004).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논문분석,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3(1): 40-47.
- 하재혁·김동일·서병성·김원술·유승호·김수근 (2008).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 「대한작업환경의학학회지」 20(2): 104-111.
- 이현수 (1997). 건강과학개론.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장현갑·강성균 (2002)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학지사.
- Bozeman, B., (2007).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Bruce S. M. (2000). "Stress, Definitions and Concepts of," in Encyclopedia of Stress VOLUME 3, ed. George Fink, 508-509. New York: Academic Press

- Campbell, D. T., & Fiske, D. W.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2), 81-105.
- European Commission (2000). *Guidance on work-related stress: Spice of life or kiss of death?*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Goldstein, S. M., and Naor, M., 2005, "Linking publicness to operations management practices: A study of quality management practices in hospital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3(2): 209-228.
- Karasek, R. A.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85-308.
- Kassarjian H, H. (1977). Content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ume 4(1): 8-18.
- Klein, K. J., Dansereau, F., & Hall, R. J. (1994). Levels issues in theory developmen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 195-129.
- Levi, L. (1995). Introduction: Spice of Life or Kiss of Death. In Cooper Cary L(ed.), *Handbook of Stress, Medicine and Health*, 2-3. CRC Press.
- Moulton, S., (2009), "Putting together the publicness puzzle: A framework for realized public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5): 889-900.
- Murphy, L.R. and Schoenborn, T.F. (eds) (1987). "Stress Management in Work Settings." U.S. Departe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incinnati, Ohio.
- National Institute for Safty and Health (1999, January). *Stress at Work* (Issue No. 99-101), Cncinneti, OH: Auther.
- Siegrist J. (1996). Adverse health effects of high-effort/low-reward condition. *J Occup Health Psychol* (1): 27-41.
- Staw, B. M. (1984). Organizational behavior: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field's outcome variab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627-666.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74-187.

박현환(朴炫宦): 201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행정, 사회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이며,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공공리더십 교육연수 도입에 대한 피교육자 인식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중심으로(2020)」, 「지역정보를 통해 본 한국에서 티부가설 적용의 함의: 지역개발기금 공채부과율 인하경쟁을 중심으로(2019)」, 「지방재정 연도 간 재원안정화 방향의 모색: 미국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중심으로(2019)」 등의 논문이 있다(E-mail: shadowman323@hanmail.net).

주효진(朱孝振):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이면서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론, 사회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감염병 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지역감염병 관리체계를 중심으로(2020)」, 「Effect of Forest Therapy for Menopausal Women with Insomnia(2020)」, 「The Impact of Time-Restricted Diet on Sleep and Metabolism in Obese Volunteers(2020)」, 「융합적 관점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경험적 연구(2021)」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E-mail: fox9895@cku.ac.kr).

정솔(鄭솔): 202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연수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조직론, 사회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이며,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2016)」, 「구직자의 행동변화를 기준으로 한 구직활동과정의 메커니즘 분석(2020)」 등의 논문이 있다(E-mail: solpinet@daum.net).

Abstract

Research trend analysis on job stress in the social sciences disciplines: For the papers published in excellent and registered journal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2017–2021)

Park, Hyeon-Hwan

Ju, Hyo Jin

Jeong, Sol

This study identifies research trends on domestic job stress in the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social changes. And it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work stress research. In this study, 91 domestic papers published in excellent journals and registered journal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KCI) from 2017 to May 30, 2021 are the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analyzes the following; Research structure(research field subdivision, publication period, research design), research content(research purpose, research subject, major variables), research methodology(measurement tool, data collec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studies decreased with the exception of 2020. Also, in 91 papers,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found in terms of selection of the same research subject, lack of interest in sub-factors of job stress, lack of interest in developing measurement tools, and lack of rigor in data collection methodologies.

This study is a narra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n job stress in the social science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a review on the tools for measuring job stress in future job stress research, securing methodological rigor, and diversification of research subjec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tudy was suggested.

Key Words: stress, job stress, social science disciplines, research trend, research structure, research content, research methodology